

독감은 독한 감기의 약자가 아닙니다

# 독감 제대로 알아보기



1/8

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!

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,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.

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

특히,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어린이, 임신부, 폐질환/심장질환 환자, 특정 만성질환 환자,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 할 위험이 높습니다.



2/8

# 여기서 잠깐!

“독감은 독한 감기 아닌가요?”



3/8

## NO!

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
인플루엔자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

200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

독감	:	감기
인플루엔자 A,B,C 바이러스	원인	200여 가지 바이러스
갑자기	시작	서서히
고열(38℃ 이상)	고열	드물다
때때로	콧물, 인후통	흔하다
흔하다	두통, 피로감	약하다
인플루엔자 백신, 항바이러스제	예방약	없다
타미플루, 리렌자	치료약	대중요법

4/8

## 독감 원인



기침, 재채기 등을 통해  
사람간 전파

비말을 만진 손을  
씻지 않고 눈, 입 또는  
코를 만질 경우

5/8

## 독감 증상

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~4일(평균 2일)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.  
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~4일간 지속되지만,  
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 된 후에도 며칠 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

6/8

## 독감 예방

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.  
또한,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, 올바른 손씻기와  
손으로 눈,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 
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

7/8

정부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 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대상  
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“  
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서  
건강한 겨울 맞이하세요!  
”



8/8

출처: 질병관리청

Q: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이나 감기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언제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.

A: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9월, 10월에 독감예방 접종을 하면 약 80%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매년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 매년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단, 65세 이상 노인, 위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성 심질환,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, 천식, 당뇨병, 심부전, 약성 종양으로 치료 받는 환자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또 만성 관절염, 가와사키병 등 아스피린 제제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에게도 독감에 걸리면 라이(Reye)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근래는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2-3세의 어린 아이들도 놀이방이나 탁아시설에 하루 종일 맡겨지는 일이 많으므로 이런 아이들도 예방접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어른은 한번, 소아는 두 번에 걸쳐서 맞습니다. 독감예방 접종은 독감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므로 독감 바이러스 이외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선 효과가 없습니다.